

국내 경제 동향

● 기준금리 3.00%로 인상 ■ '26-8-27 한국은행

-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 기준금리를 2.75%에서 3.00%로 0.25%p 인상.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
-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은 3.3%, 2.9%로 5월 전망(2.6%, 2.1%)을 큰 폭 상회.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·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로 2.8%(6월 3.2%)까지 낮아졌으나 근원물가는 2.6%로 상승(6월 2.5%)
- 원/달러 환율은 8월 26일 1,384.8원으로 6월(기말기준 1,549.4원) 대비 큰 폭 하락.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에 따른 외환수급 개선과 미 달러화 약세가 배경
- ❖ 금리 인상은 농가 금융비용을 높이고 환율 하락은 수입 농자재 가격을 낮추는 등 상반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, 농가 경영비에 대한 전체 영향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안법·양곡관리법 시행, 수급관리의 국가 책임 강화 ■ '26-8-26 농림축산식품부(양곡법·농안법)
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과 「양곡관리법」이 8월 27일부터 시행. 사전적 수급관리와 사후 매입·지원 등을 통해 수급정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
- (농안법)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며, 대상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
 - 중앙정부·지방정부·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
 -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개편
- (양곡관리법)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면적을 담은 양곡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 범위를 정부관리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.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~5%, 직전 단경기 가격의 평년 대비 5~8% 하락이라는 범위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불안 기준을 정하고, 해당 시 매입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의무화
 -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.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025년 2,440억 원에서 2026년 4,196억 원으로 확대
- ❖ 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에 따라 농가 소득 안정 효과와 재정 소요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, 9월 심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

● 2026년 벼 재배면적 67만ha, 전년 대비 1.1% 감소 ■ '26-8-27 국가데이터처; 농림축산식품부

-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벼 재배면적(잠정)은 670,069ha로 전년(677,514ha) 대비 7,445ha 감소
 - 농식품부는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'수급조절용 벼* 신청면적(1만1천ha)을 제외하면 밥쌀 공급 기반이 65만9천ha 수준으로 전년 대비 1만9천ha 감소할 것으로 전망. 이는 최근 5년 평균 감소량(9,600ha)의 2배 수준
- *'수급조절용 벼' 직불은 참여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(RPC)에 의무 출하해 평시에는 가공용으로만 공급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제도
- ❖ 밥쌀 공급 기반이 전년 대비 1만9천ha 줄어드는 만큼, 수확기 작황에 따른 쌀 수급과 가격 변동 가능성 점검 필요